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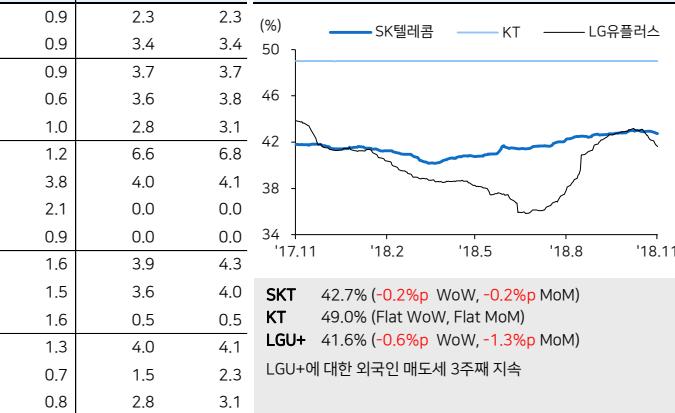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11.19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0.3	-3.0	-6.9	-15.0	8.8	8.8	0.9	0.9	2.3	2.3	
통신업종	2.8	-3.2	3.1	19.1	7.8	7.8	0.9	0.9	3.4	3.4	
SK텔레콤	4.9	1.8	6.7	25.7	6.5	6.9	1.0	0.9	3.7	3.7	
KT	1.2	1.5	4.2	9.3	10.6	10.3	0.6	0.6	3.6	3.8	
LG유플러스	-1.3	-8.9	-5.5	22.8	11.8	11.0	1.1	1.0	2.8	3.1	
AT&T	-1.3	-7.0	-8.3	-5.1	8.6	8.4	1.2	1.2	6.6	6.8	
Verizon	3.0	11.6	9.9	25.8	12.9	12.8	4.5	3.8	4.0	4.1	
T-Mobile	0.7	0.1	4.9	22.0	20.8	17.3	2.3	2.1	0.0	0.0	
Sprint	1.9	-1.6	2.9	24.0	32.5	143.4	1.0	0.9	0.0	0.0	
NTT Docomo	0.6	-11.0	-13.0	-8.7	13.1	13.0	1.6	1.6	3.9	4.3	
KDDI	3.8	-15.1	-19.4	-13.9	10.7	9.8	1.6	1.5	3.6	4.0	
Softbank	0.2	-10.1	-12.2	4.6	8.8	11.8	1.9	1.6	0.5	0.5	
China Mobile	5.4	-1.1	4.8	4.8	12.2	12.0	1.3	1.3	4.0	4.1	
China Unicom	4.6	-0.8	-2.0	-22.3	28.1	18.0	0.7	0.7	1.5	2.3	
China Telecom	6.0	4.1	14.4	8.6	14.4	13.4	0.9	0.8	2.8	3.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5%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은 전주 대비 -0.6%p 하락하며 3주째 외국인 매도세 지속
한편, LG유플러스는 16일부터 U+ IPTV 내 넷플릭스 정식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발표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에 주목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기간이 추세를 형성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
통신 3사 중 벨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2019년 사업 방향성이 가장 긍정적인 SK텔레콤에 주목
12월 1일 5G 상용화를 앞두고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통신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	12	13	14 3Q18 실적공시 마감	15	16 LGU+, Netflix 서비스 시작	17
18	19	20	21	22	23	24

3 주간 뉴스

▶ LG유플러스 IPTV서 넷플릭스 콘텐츠 多 본다

(한국경제)

- LG유플러스는 16일부터 U+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시작. 셋톱박스 교체 필요없이 신청 가능
- 연말까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3개월간 넷플릭스 무료, 곧 넷플릭스가 포함된 요금제 출시
- 다음달 11월 개편해 초기 화면에 VOD, 넷플릭스, 아이들나라, TV 앱 메뉴를 한판에 보여줄 방침
⇒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한 딜라이브, CJ헬로 등과는 달리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이용 가능
- 이를 통해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확대하고 U+tv의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

▶ 명동 한복판에 들어선 5G 기지국...SK텔레콤, 상용화 '박차'

(연합뉴스)

-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5G 전파 송출을 앞두고 명동 인근의 5G 상용망 구축 현장을 공개
- 5G 기지국에는 '빔포밍', '다중 사용자 MIMO(MU-MIMO)', '빔트래킹' 기술 등이 탑재
- 또한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5G AI 네트워크와 자체 개발한 3D 설계 솔루션(5G T-EOS)을 활용
⇒ SK텔레콤은 장비사 선정을 가장 빨리 미치는 등 투자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한걸음 앞선 모습
- 한편, 13일 유영민 장관은 12월 1일 5G 상용화 선언을 공식화. 관련 정책 및 투자 가속화 전망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추진 '내년으로'

(the bell)

-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와의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련 TTF팀을 해체
- 인수안을 (주)LG에 올리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 사장으로 선임할 인사는 내부적으로 선임
- 연말 인사와 구분준 부회장의 계열분리 이슈 등이 맞물려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전망
⇒ 그룹 내 이슈로 인수 건이 지연되고 있으나 케이블TV사 인수에 대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면 경쟁사들의 인수 시도도 활성화될 전망

▶ SK브로드밴드, 'B tv NUGU' 전체 UHD 셋톱박스에 적용

(전자신문)

- SK브로드밴드가 전체 UHD 셋톱박스에 'B tv 누구'를 적용, 음성인식 기반 AI 서비스를 지원
- 그동안 AI 일체형 셋톱박스보유자만 음성인식 AI 서비스 이용. 현재 일반형도 서비스 이용 가능
- UHD, HDR 셋톱박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체 UHD 셋톱박스 펌웨어 업그레이드 완료할 계획
⇒ SKB는 음성 제어를 통해 편리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
- B tv 누구의 VoD 재생 제어, 홈쇼핑 주문 등의 기능을 통해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 가능

▶ 방통위 "TV홈쇼핑-IPtv 송출수수료 협상 들여다볼 것"

(아이뉴스24)

- 방통위는 TV홈쇼핑과 IPTV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언
- 다만 해당 문제는 과기정통부 담당. 이 방통위원회는 과기부와 협력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
- 또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값싼 가격에 방송을 볼 수 있는 만큼, 기법적 딜 규제하겠다는 방침
⇒ TV홈쇼핑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에 나온 발언으로, 홈쇼핑 업체들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송출수수료 협상을 앞둔 SKB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위성방송 '선택약정할인'도 통했다

(ZDNet Korea)

- 스카이라이프는 10월 sky A와 인터넷 신규 결합 가입자가 월평균 대비 110% 증가했다고 발표
- 신규 가입자 중 30% 요금 할인 홈결합 선택비율은 약 60%로 통신비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
- 방송 서비스만 이용하다가 인터넷까지 결합한 가입자는 1천명으로 기존 월평균 대비 53% 증가
⇒ 이를 통해 신규 가입자 확대 및 기업자 이탈을 방지하는 락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
- 추가적으로, UHD방송과 인터넷 결합상품 중심으로 VOD, IP 기반 부가서비스 매출 확대 예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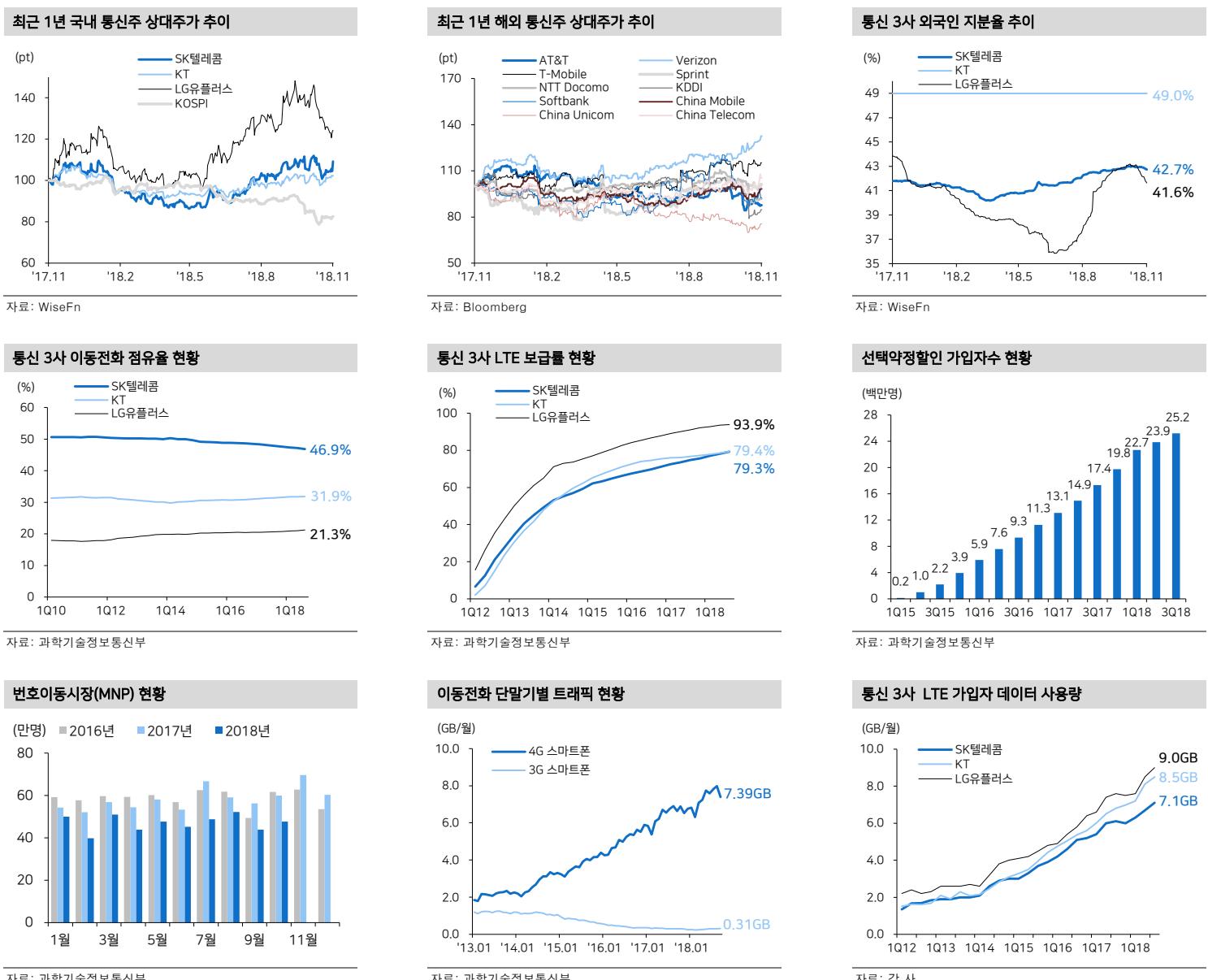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79,000	20.1	14.9	15.5	1.2	1.3	3.0	2.8	4.0	4.2	6.0	5.8	16.8	14.1
	KT	29,950	7.0	20.8	21.1	1.2	1.2	0.6	0.7	4.2	4.2	2.5	2.4	6.0	5.9
	LG유플러스	15,350	6.0	10.7	10.9	0.8	0.8	0.5	0.5	2.2	2.4	3.7	3.5	10.1	9.8
미국	AT&T	30.3	220.5	174.4	185.5	31.4	35.5	24.0	26.1	56.6	60.8	7.0	6.5	13.1	11.2
	Verizon	60.2	248.8	130.9	132.2	29.3	30.9	18.8	19.8	47.4	48.5	7.6	7.4	38.7	32.3
	T-Mobile	69.1	58.7	43.2	45.4	5.5	5.9	2.8	3.4	12.1	12.9	7.3	6.8	11.8	12.6
	Sprint	6.3	25.7	32.4	33.1	2.6	2.7	5.5	0.2	11.1	12.3	5.2	4.7	14.1	0.4
일본	NTT Docomo	2,568	86.1	44.2	42.7	9.1	8.9	6.7	6.1	13.9	13.5	6.0	5.9	12.6	12.3
	KDDI	2,528	56.7	45.8	45.3	9.0	9.0	5.3	5.4	14.1	14.0	5.0	4.8	15.6	15.7
	Softbank	8,802	85.8	83.8	83.1	11.6	12.7	9.9	7.0	25.0	25.0	9.2	8.8	22.0	11.4
중국	China Mobile	76.9	201.0	108.1	110.6	17.2	17.1	16.6	16.8	40.0	40.9	3.3	3.3	11.4	10.8
	China Unicom	8.8	34.4	41.2	43.4	1.3	2.2	1.1	1.9	12.5	13.3	2.8	2.7	2.7	4.2
	China Telecom	4.1	42.0	54.9	57.1	4.1	4.5	2.9	3.1	15.2	15.8	3.4	3.2	6.1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주요 차트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